

SK종합화학, 그룹 화학부문 리더

2011년 1월3일 창립총회에서 확정 ... SK에너지는 정유부문 자회사로

SK에너지의 화학부문 분사 사업부가 SK종합화학으로 다시 태어난다.

SK에너지는 2011년 1월1일부로 분사하는 정유와 화학부문의 자회사의 이름을 각각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영문명 SK Global Chemical)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2월16일 밝혔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전국의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SK에너지라는 상표를 쓰고 있고 정유기업으로서 인지도가 높아 정유부문 분사사가 이어받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SK그룹의 회사명은 2011년 1월3일 창립총회에서 공식 확정된다.

2개 사업부문을 분사한 후 존속회사로 남는 SK에너지의 회사명은 SK이노베이션으로 바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6>